

# 외국인 거주에 대한 대구대 학생들의 인식조사

이경서(지리교육과 3학년) · 전예진(지리교육과 3학년)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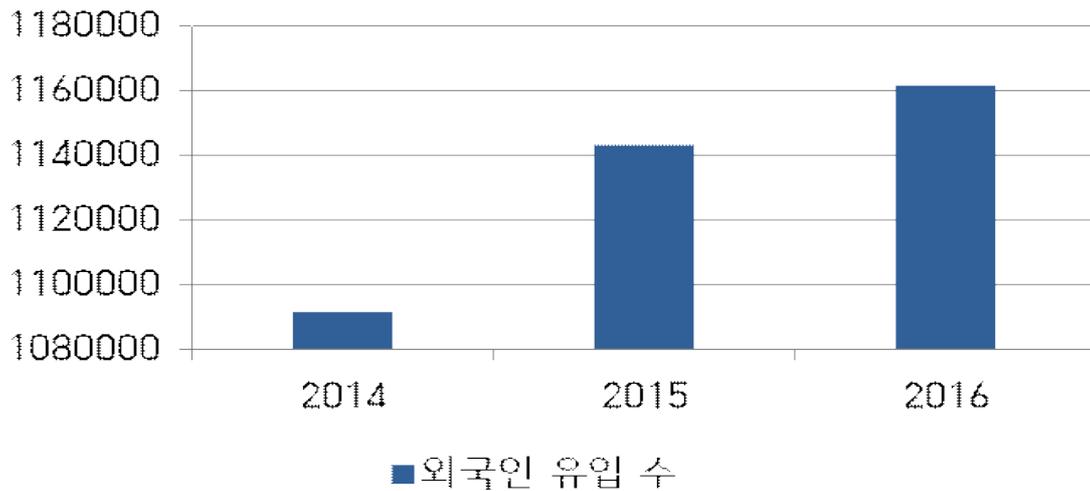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외국인 및 외국인 거주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인식에 의해 다양한 경관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대구대학교에도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했다. 대구대학교 근처에 있는 외국인 거주지의 거리에 따라 국내 학생들의 인식의 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여 이는 유의미한 가설로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선방안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다문화 사회, 외국인 거주지, 문화다양성

## 1. 서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제 우리 사회는 세계 곳곳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국제 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국제 이동의 유형으로는 관광객, 결혼이주, 노동이주, 유학생 등이 있으며,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유입 수



<그림1>. 통계청, 국내 유입 외국인 수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증가추세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안산, 이태원, 서래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행논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먼저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주민들은 외국인의 밀집거주가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국인을 경제적 소비자로서 인정하지만 소극적 관계 유지로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안산시 원곡동은 외국인의 생활패턴과 소비패턴에 따라 지역이 변화해가는 것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다(한정우, 2008).

이에 반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래마을은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준섭, 2012).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적인 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특성, 언어, 프랑스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다양한 건축 양식과 거리의 모습 등 프랑스인 이미지를 좋아한다. 즉, 서래마을은 프랑스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프랑스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한국인들에 의해서 상업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된 공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두 지역 주민들의 상반적인 인식을 이태원동은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연·김홍순(2014)은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내·외국인의 장소 이미지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의 호의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설, 공연, 행사적 요인과 이국적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요소는 유흥 및 일탈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수도권외의 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들의 거주에 대한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구대 주변에 살고 있는 내국인 학생들의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의미 있는 61장의 분석을 진행했다. (2017년 12월 기준)

## 2. 본론

### 1) 연구 가설

우리는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리’라고 보았다. 외국인들과 가까이 사는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에 반해 외국인들과 멀리 사는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거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본 이유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외국인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살 경우, 먼 거리에 사는 경우보다 외국인을 접할 기회도 훨씬 많아질 것이며 더욱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역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거리’ 외에도 같은 학과에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의 출신 국가에 따른 선입견의 유무, 내국인 학생의 주전공이 언어, 국제교류 등 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지만, 거리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한계점을 가진다.

## 2) 자료 수집

우리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양적 연구 중 설문지법을 채택했다. 대구대 근처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들의 표본이 많기 때문에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지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거주지와 외국인의 거주지 간의 거리, 그리고 외국인 거주에 대한 내국인 학생의 인식, 그 이유를 다루었다. 설문조사의 표본을 선정하는 표집방법으로 무작정 표집과 동시에 사전에 외국인과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구분하여 표집을 했다. 무작정 표집의 시간대는 대체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 시간대였으며, 요일은 대개 평일이었다. (2017.11.14.-11.17) 그리고 사전에 조사한 외국인 거주지 근처에서 표본조사를 많이 실시하였고, 외국인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응답한 학생 20명에게서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의도적 표집을 실행한 이유는 논문의 가설이 거리에 따른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조사였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지와 다양한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표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몇 명에게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진행해 요인 분석에 활용했다.

## 3) 자료분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들의 설문조사가 외국인 거주지와 한국인 학생들의 거주지 간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응답률이 고르게 나타나야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다. 아래의 표는 우리가 조사한 표본집단과 외국인 거주지 간의 거리에 대한 응답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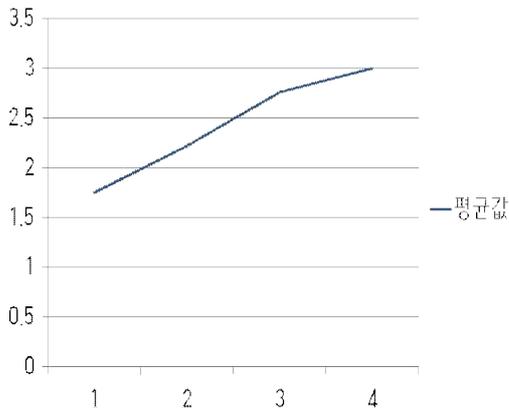
	거리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같은 건물 거주	20	32.8%	32.8%	32.8%
	옆 건물 거주	18	29.5%	29.5%	62.3%
	옆 건물을 제외한 건물 거주	13	21.3%	21.3%	83.6%
	외국인이 근처에 거주하지 않는 유형	10	16.4%	16.4%	100%
	전체	61	100%	100%	

<표 1> 응답 비중

설문지 문항 분석 시 편의를 위해 외국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1.00, 외국인이 옆 건물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2.00, 옆 건물을 제외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3.00, 없다고 응답한 항목은 4.00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총 73개의 설문지 중 유의미한 설문지 61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의미한 설문지는 외국인 거주지와 거리를 모른다고 응답한 설문지를 뜻한다.

먼저 총 61개의 설문지 중 1.00 집단의 응답 수는 20개, 2.00 집단의 응답 수는 18개, 3.00 집단의 응답 수는 13, 마지막으로 4.00 집단의 응답 수는 10개이다. 1.00 집단부터 4.00 집단까지 응답 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료 분석 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 상관계수 그래프

	거리	인식점수
거리	Pearson 상관	.538**
	유의확률 (양측)	.000
	N	61
인식점수	Pearson 상관	.538**
	유의확률 (양측)	.000
	N	6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에 대한 인식 역시 조사했다. 인식은 단순한 응답(보통)이 나오지 않도록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의 항목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거리와 인식 간의 관계를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다.

	거리	평균값
거리에 따른 인식의 평균값	1.00	1.75
	2.00	2.22
	3.00	2.76
	4.00	3.00
	전체 평균	2.30

<표 3>. 거리에 따른 인식의 평균값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수치를 부여했다. 매우 부정적 문항은 1, 부정적 문항은 2, 긍정적 문항은 3, 매우 긍정적 문항은 4의 수치를 가진다. 즉, 인식의 평균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4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와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균값이 작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거리와 인식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와 표를 통해 우리의 가설이 검증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의 표는 거리와 인식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0.538이라는 수치를 가지므로, 거리와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99%의 확률로 유의미하다.

#### 4) 응답 요인 분석

이 논문의 목적 중 하나는, 외국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다. 외국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던 요인들 -긍정적, 부정적-을 분석 및 참고하고자 한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로, 치안 상의 위협, 소음 문제, 문화적 차

이를 꼽았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조사자들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치안 상의 위협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밤중에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왠지 무섭다”, “요즘 미디어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떠올라 무서울 때가 있다.” 고 하였다. 소음 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술을 정말 많이 마셔요, 특히나 저희들이 시험기간인 경우 더더욱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있다 보면 밖에서 돌아다니며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밤중에 영어나 외국어가 들리면 굉장히 짜증나죠.” 라고 응답했다. 문화적 차이로는 “음악을 엄청 시끄럽게 틀고, 친구들을 매일 불러요. 영화에서나 보다 흥파티가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랫집에 사는데, 굉장히 쿵쿵거리며, 매일 뛰어다녀요.” 등을 이유로 밝혔다.

이와 달리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피해가 없다는 것과 그들의 문화이니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유로 많이 제시하였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제 옆집에 사는 외국인은 조용해요, 마주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해주죠. 딱히 직접적으로 저에게 가하는 피해는 더더욱 없어서 굳이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했다. 그들의 문화이니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타지에서 공부하러 일하러 솔직히 힘들겠죠. 자신들과 같은 출신 국가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들의 문화이잖아요. 이제는 다문화 시대이니만큼 그들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울려 살고자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응답했다.

## 5) 인식 개선 방안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위에서 시행한 응답 요인 분석 자료를 참고해 외국인 거주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즉 원인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크게 외국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방법(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요인)과 한국인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외국인이 무섭다고 응답한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외국인 거주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외국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그 이유로 든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음 문제’였다. 소음 문제는 ‘원룸촌’이라고 불리는 대학가 주변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같은 언어로 들려오는 소음보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들려오는 소음은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게다가 밤 10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의 소음은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당연히 심어 놓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나라에서 또는 같은 언어를 쓰는 외국인 들끼리 모여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즐기는 그들의 소리가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인은 시끄럽다는 인식을 준 것이다. 대구대 주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학생, 노동자, 조교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험이나 학교생활을 압박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 중 받았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일이 마친 밤 시간동안 집에 돌아와 주변 친구들과 함께 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웃을 배려해서 시끄러운 소음은 집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

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거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자체는 사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라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정적인 선입견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매체들,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는 데에서 오는 이질감,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인들의 단일 민족 사상 등이 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입견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선입견 개선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선입견 개선 방안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지어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은 현재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실조론, 다른 하나는 문화다원론이다. 문화실조론이란 ‘동화’에 초점을 두고 주류문화에 하위문화를 맞추는 교육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어 교육 등이 있다. 문화다원론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주류문화, 하위문화를 나누지 않고 모두 동일한 수준의 문화라고 가정해 두 가지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현장 및 교육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문화 교육은 문화다원론이다. 문화다원론에 의해 현재 두 가지 교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각각 세계시민성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이다. 세계시민성교육이란 시민의식을 지구촌까지 확대해서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태도, 가치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교육이란, 자신의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의 우수성 역시 존중하며 이에 대해 배려심 및 관용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교육방향을 현재 우리의 문제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10대들에게만 적용할 교육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지구촌 시민으로서 관용과 배려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고 응답한 긍정적 요인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 결론

#### 1) 한계점

이 논문은 가설의 한계점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변수요인들 중 거리만으로 외국인 거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의 출신 국가, 언어, 민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표집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에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2) 시사점

지금까지 외국인 거주에 대한 대구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와 반대로 거리가 가까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으며, 이는 현대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식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 사회에 맞춰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인식을 토대로 외국인 거주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대 근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그들에 대해 배려와 관용으로 포용하는 우리들도 어울려 더 좋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맺는다.

##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대구대 학생들의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경서, 전예진입니다. 현재 저희는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대구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를 위해 이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에 응해주신 내용은 오로지 조사에만 이용되며, 상업적 목적 등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역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이경서  
전예진

1. 귀하의 집 근처에 외국인 거주지가 있습니까?

- ① 같은 건물에 있음
- ② 옆 건물에 있음
- ③ (옆 건물을 제외한) 같은 골목에 있음
- ④ 없음
- ⑤ 모르겠음

2. 외국인 거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

2-2.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학과 :

학년 :

학과 내에 외국인이 있나요? ( O , X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김경민,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현정, 2010,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시민교육”,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명보준, 2014, “외국인 밀집지역 및 주변지역의 사회적 분절에 관한 연구 :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최재연·김홍순, 2014, “이태원의 장소이미지 및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 내·외국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준섭, 2012, “다문화 마을의 형성주체와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서래마을과 조선족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